**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ㆍ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ㆍ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동지침:** 다음 면 참조

**ㆍ선교사편지:** 사랑의 후원 헌금은 다음 주까지로 마감합니다.

**ㆍ귀가:** 송인선

**ㆍ생일축하:** 김다니엘, 김진수, 조예나, 김요한, 한명일

**\*\* 함께 기도합시다 \*\***

1)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게 하소서.

2)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3)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더욱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4)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막4:1-20 월/막4:21-34 화/막4:35-41 수/막5:1-20

목/막5:21-43 금/막6:1-13 토/막6:14-29 일/막6:30-44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73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3월 8일** | **3월 15일** | **3월 22일** | **3월 29일** |
| **예배기도** | 한상철 | 신형만 | 신일수 | 김평님 |
| **말씀일기** | 허지은 | 유근임 | 정수연 | 손민해 |
| **안내위원** | 신형만, 예배부 | | | |
| **헌금위원** | 김종권, 박희영 | | | |
| **애찬봉사** |  | 나라 주일 |  |  |

**37-10호 2020년 3월 8일**



**“너는 내 것이라”** (사43:1)

주일예배: 12:00 Fliedner Saal

유초등부예배: 12:00 Teestube

청소년부예배: 12:00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선교성경아카데미(MBA):

잠시 휴강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63-139 2225

**교육/ 이영환 전도사** HP. 0163-143 28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가 정 예 배 (2. Fastensonntag)**

오

인도: 가족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배부름/Eingangsgebet 시98:1-3 | | 찬송/Gemeindelied 23장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125번 | | 찬송/Gemeindelied 254장 | | 기도/Gebet 가족 중  말씀일기/Bibeltagebuch 가족 중  찬양/Chor 559장(혹은 가족 중 원하는 찬송 함께 부르기)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마가2:1-17 | | 설교/Predigt **’집에서 집으로’** (설교원고 낭독) | | 기도/Gebet 설교 낭독자  찬송/Gemeindelied 438장  봉헌/Kollekte --- 교회 구좌로 송금, 혹은 모아서 나중에 전달 --- | | 광고/bekantmachung  주의기도/Vaterunser 다같이  **\*\*교회 구좌**  Baek, Han-Jin Kim  IBAN:DE29 3007 0024 0598 1931 00  BIC: DEUTDEDBDUE | |  |  |

◀ **코로나19 대응 행동 지침** ▶

유럽에서도 점점 확산되어 가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직 임원회가 긴급히 의논하여, 우리교회가 현재상황에서 취할 몇 가지 행동 지침을 정했습니다.

가능한 직접 접촉을 삼가기 위해, 최소한의 기본 모임만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당분간, 토요기도회와 주일예배만 드리고,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이나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은 댁에서 예배드리시기를 권합니다.

2. 고국이나 해외여행 등을 다녀 오신 분이나, 한국에서 오신 지인 방문자들은 최소 2주이상 자가격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당분간, 외부 방문자들의 주일 예배 참석을 정중히 사절합니다.

4. 주일애찬 및 토요기도회 애찬 등 모든 식사 모임은 당분간 중지합니다.

5. 나라(구역) 모임 및 각종 소그룹 모임도 당분간 중지합니다.

6. 인사는 악수 대신 가벼운 목례로 합니다.

7. 각자가 몸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최대한 이동과 접촉을 자제하며, 기도 중에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함께 행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재의 수요일

뒤셀도르프선교교회

**<설교>**

**집에서 집으로**(막2:1-17) 손교훈 목사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11). 예수님 치유와 회복의 출발점도 ‘집’이요, 종점도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산악인 **김창호 대장**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택하며 늘 조금 더 힘들게 산을 오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뒷 번호는 8611, 이 숫자는 히말라야의 K2 봉의 높이인데 가장 높지는 않아도 험하디 험한 봉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이 **'집에서 집으로'**입니다. 등반이란, 집에서 떠났다가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야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집으로”**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었습니다. 2002년에 제작되어 당시 400만이 넘는 관객들이 찾아주었던 영화로, 외할머니 역을 연기하셨던 김을분 님이 별세하신 작년-2019년에 재개봉하여, 예전의 감동을 다시 불러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도 치유와 회복의 출발점은 ‘집’이요 그 종점도 ‘집’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1)에 많은 무리들이 그 집으로 몰려 들고, 예수는 집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2). 누구에게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때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을 통해 들것에 실려 예수께 옵니다(3). 하지만 **무리들에게 막혀**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이의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정도 선에서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집 지붕을 뚫고 주님 앞으로 병자를 달아 내리는 극단적 행동을 감행합니다(4). 우회하는 길 같았지만, 확실한 길을 찾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친구의 질병을 고쳐야 했고, 그 집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5)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때 주님은 병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집 안에 계셨고, 집에서 고쳐주신 예수님은, 치유 받은 사람을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치유의 완성은 결국 집으로 가는 것임을** 깨닫도록 이끄십니다. 마태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며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9:7**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한편, 이 집 주인은** 이런 소란에도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정신 없을 지경이 되고 지붕이 뜯겨 나가는데도 불평이 없습니다. 진짜 집 주인이 따로 계심을 아는 듯 합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계시면, 사람들이 집으로 모여 들고 지붕이 뜯겨나갈 수도 있음을,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내 집에 주님이 계신 흔적임을 묵묵히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또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를 제자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레위의 “집에 앉아”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15). 오늘 우리에게도 속히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진정되어, 예배 후에도 기도 후에도, 모임 중에도 함께 웃으며 애찬을 나누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8절 이하에서도, 예수는 왜 세례 요한처럼 금식 안 하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 **집**….신랑”(19)이라고 비유하시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22)는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새 부대는 새 포도주가 머물 새 집이라 하겠죠.

예수님은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집에서** 약한 자를 고치셨고,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집을 떠나-가족을 떠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은 결코 집을 버리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자기 집을 떠나신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의 길, 제자의 길은 결코 집을 떠나서가 아니라, 집에서 시작되고 집에서 마감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엄마 뱃속 ‘아기 집’에서 살다가, ‘세상 집’에 살다가, ‘하늘 집’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집으로 가는 길이 회복의 길이요, 참된 행복의 길인 것을 깨우쳐 주시려, 하늘 집을 버리시기까지 우리 인생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네 한 집 한 집이 모두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집에 주님이 계시기에 ‘작은 교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기에 ‘큰 집’**입니다. 예수께서 주인 되시기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438장) 찬양이 언제 어디서나 울려 퍼집니다.

때로 집에는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집이 치유와 회복-천국으로 가는 시작점이요, 마지막 종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집은, 예수께서 계셔서 우리 집은 행복입니다. 사랑이요 평화입니다. **집에서 집으로**, 우리 주님의 계획과 의도요, **우리가 마땅히 갈 길, 머물 곳**입니다.

**기도:** 우리를 집에 살게 하시기 위해, 하늘 집을 떠나 세상 집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집에 살게 하시려, 육체의 집을 십자가에서 다 찢으신 주님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큰 집인 교회에도 머물고, 작은 교회인 우리 각자의 집에도 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 집이 천국되게 하옵소서. 큰 집에 자주 모이기도 오래 머물기도 힘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집에 계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와 방식이 달라진다 해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하소서. 우리 집 주인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